

# 체질에 따른 처방

이철호 / 이철호한의원 원장

환자들 중에는 간혹 '누가 그러는데, 오래된 위장병에는 무슨 한약이 좋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저도 그약을……' 하며 어느 특정한 약을 지적해서 지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마치 동네 약국에 가서 어느 특정한 드링크제나 소화제 따위의 이름을 대며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태도다.

그러나 약은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주의깊게 먹어야 하는 것이 약이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무서운 부작용을 초래하여 병이 더욱 악화되거나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는 수도 있다.

양방(洋方)에서는 같은 병에 같은 약을 쓰는 것이 흔한 일이지만, 한방에서는 똑같은 병이라도 환자의 체질이나 건강상태, 증세, 나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약을 쓰고 침구(鍼灸)치료를 하는 것이 보편화된 사실이다. 즉 개인차를 무시한 한방약이나 침구치료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 예로, 똑같은 감기 환자라 하더라도 평소 위가 약하고 몸이 냉한 부인이 오한과 열이 나고 코가 메이며, 특히 머리와 팔다리가 아픈 경우에 쓰는 처방과 평소엔 신경통이 있는 사람이 감기로 인해 머리와 팔다리, 허리 등 몸 전체가 몹시 쭈시고 아픈 류머티즘성 감기에 쓰는 처방이 각기 다른 것이다.

따라서 한방에서는 어떤 환자에게 어떤 처방의 약을 써서 효험을 보았다고 해서 다른 체질의 환자에게

도 그 처방을 그대로 쓰는 경우란 드문 편이다. 어떤 환자에게서 그야말로 신통력을 발휘해 환자의 병을 씻은 듯이 낫게 해준 약이 다른 환자에게는 별다른 효험이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듯 한방에서는 약재 하나하나마다 그 특성이 다른 걸로 보고 있다. 그래서 약재의 약성이 작용하는 바에 따라 그 성

질을 따뜻하다, 뜨겁다, 보통이다, 차다, 서늘하다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약재마다 독성이 있고 없음을 구분해 놓고 있으며, 약재의 맛에 따라 달다, 쓰다, 맵다, 시다 등을 세세히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감초는

성질이 따뜻하고, 무독(無毒)하며 맛이 달다. 갈근(淸뿌리)은 성질이 보통이고 무독하며 단맛과 쓴맛을 가지고 있다. 지모(知母)는 성질이 차고 무독하며 맛은 달고 쓰다.

이처럼 약재마다 독특한 성질이 있으므로 사람의 체질이나 증상 등에 따라 약도 달리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마다 다른 체질적 특성이나 증상 등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이에 맞는 약을 써야만 비로소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부작용 또한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러스트 | 이길용

한방에서는 환자의 병명을 진단하기에 앞서 몸 전체의 상태를 보고 비정상적인 것을 찾아내어 처방의 기준을 정한 다음(이것을 證이라 한다). 이 증에 맞춰 처방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다. 환자의 증을 파악한 결과 만일 한증(寒證)이라는 진단이 내리면 따뜻하게 하는 약을 쓴다. 이와는 반대로 열증(熱證)이라는 진단이 내리게 되면 거기에 맞는 약을 쓰게 된다. 즉 찬 것을 덜게 하고, 더운 것을 가라앉혀 몸 전체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한방약은 보통 이 원칙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약을 보다 올바르게 쓰기 위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방에서는 '허하면 보(補)하고, 실하면 사(瀉)하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 이러한 원칙에서 나온 말이다.

소음인의 병에는 온성(溫性) 약재가 많이 쓰인다. 파두·부자·인삼·약쑥·청피(익지 않은 굴껍질)·후박 등과 같이 뜨겁거나 따뜻한 성질의 약재가 소음인의 체질에 맞는 약재라 할 수 있다.

소양인은 소음인과는 반대로 비위의 기능이 왕성하고 비위에 열이 많은 체질이므로 온성(溫性)이나 열성(熱性)의 약재는 적합치가 않다. 신장(腎臟)의 기능이 약하고 비위에 열이 많은 만큼 신장의 기능을 보해주고 비위의 열을 가라앉혀 몸의 조화를 이루게 할 수 있는 약재가 적합하다. 석고·지모·숙지황·목통·황련 등과 같이 성질이 차가우면서도 신장의 기능을 북돋아주는 약재가 소양인에게 적합한 것이다.

체질적으로 폐와 심장 그리고 폐의 배속기관인 대장이 약한 태음인은 이들 기관을 보해 주는 약재가 알맞다. 특히 웅담은 허약한 폐기능을 지닌 태음인에게 아주 좋은 약이 된다. 또한 심장이 약하고 한가지 일에 몰두하는 성격의 태음인에게 녹용을 주재(主劑)로 해서 약을 쓰면 효과가 뚜렷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녹용의 약효와 함께 녹용이 태음인의 체질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태음인에게 적합한 약재로는 산약(마뿌리)·사

향·대황·마황·우황·행인(살구씨) 등이 있다.

태양인은 원래 간의 기능이 허약하고 하체가 약한 체질이므로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약재가 알맞다. 오가피·송절(소나무마디)·목과(모과)·미후도(다래) 등이 태양인 체질에 맞는 약재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약재마다 체질에 따라 적합한 것이 있고, 또 적합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런데 간혹 체질에 맞는 약재를 쓴 약을 먹고도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소음인이 소음인 체질에 적합한 부자(附子)가 든 약을 먹고 부작용을 일으키는 수가 있으며, 체질적으로 마황이 몸에 맞는 태음인이 마황이 든 약을 먹고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부자는 성질이 뜨겁고, 몸을 덥혀 주며, 심장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흥분을 가라앉히는 작용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약효가 있으므로 냉증·신경통·류머티즘 등 여러 가지 병에 쓰인다. 그리고 마황은 폐의 기능을 북돋아주고,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며, 기관지 경련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해열작용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약효를 발휘한다. 그러므로 비위가 냉한 소음인에게 부자는 좋은 약이 될 수 있고, 폐의 기능이 허약한 태음인에게 마황 역시 좋은 약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부자에는 아코니틴이라는 독성이 있고, 마황에는 비록 독은 없지만 심장이 나쁜 사람이 많이 복용하면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들 약재가 체질에 맞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약을 오랫동안 많이 먹거나 약의 분량이 적정량을 초과할 경우, 또는 독성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자칫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방의와 상의도 없이 함부로 약을 지어다 먹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약을 복용할 때에는 사용기간과 양에 대한 충분한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이나 체력이 약한 사람, 혹은 약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 등은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